2020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보기>의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쳐쓸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인간은 자연의 위대한 힘과 맞설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굴복하면서 살아왔다.
- 대도시의 수도관이 낡고 녹슬어서 녹이 섞이거나, 물이 새는 일이 적지 않다.

① 생략된 조사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② 잘못 쓰인 관형어를 적절하게 수정한다.
③ 연결 어미가 의미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한다.
④ 불필요하게 쓰인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적절하게 보충한다.

2.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맞지 <u>않는</u> 것은? [3점]
① 이 나무는 밤나무가 <u>아니에요</u>.
② 위조품은 진품을 <u>본따서</u> 만든다.
③ 마당에 핀 장미꽃이 정말 <u>빨갛네</u>.
④ 가을이 오자 들판의 곡식이 <u>누레졌다</u>.
⑤ 하산길은 경사가 <u>가팔라서</u> 무척 위험하다.

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열여섯 → 열녀섣 → [열려섣]
  ㉠ ㉡

① ㉠: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다.
② ㉠: 교체와 축약이 일어난다.
③ ㉠: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④ ㉡: 첨가가 일어난다.
⑤ ㉡: 축약이 일어난다.

4. ㉠~㉤의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 Baengma ㉠신라 _____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 Hangnyeoul ㉡알약 _____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 haedoji ㉢같이 _____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 joko ㉣놓다 _____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_____

① ㉠: Silla ② ㉡: allyak
③ ㉢: gachi ④ ㉣: nota
⑤ ㉤: Jipyeonjeon

5. ㉠~㉢의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용언의 활용형 '가는'은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 학교에 <u>가는</u> 학생 (등교하는)
㉡ 칼을 <u>가는</u> 사람 (연마하는)
㉢ 손목이 <u>가는</u> 사람 (얇은)

① ㉠: 갈-+-는 ② ㉡: 가늘-+-는
③ ㉡: 갈-+-는 ④ ㉢: 가-+-는
⑤ ㉢: 갈-+-는

6.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에서 접미사 '-적(的)'이 결합한 말은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명사: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시장보다 값이 비싸다.
- 관형사: **일방적**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 부사: ㉠_____

① 이번 일은 <u>비교적</u> 쉽다.
② 이런 태도는 <u>비상식적</u>이다.
③ 이 제품은 <u>기술적</u> 결함이 있다.
④ 오늘은 <u>전국적</u>으로 비가 내린다.
⑤ 갈등을 <u>평화적</u> 방법으로 해결하자.

7. 밑줄 친 말이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조사나 어미 가운데에는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환경에 따라 '을'과 '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을'과 '를'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① ㄱ 학교 앞 공원에서 내일 만나자.
ㄴ 봄이 오니 거리에 꽃이 가득하다.

② ㄱ 친구로서 간곡하게 부탁한다.
ㄴ 이것으로써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③ ㄱ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하라.
ㄴ 젊은이여, 내일의 희망을 간직해라.

④ ㄱ 심심한데 어디라도 나가 볼까?
ㄴ 작은 관심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⑤ ㄱ 소풍을 어디로 가니?
ㄴ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8. <보기>는 국어사전의 문형 정보와 용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설득-하다(說得--)「동사」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

【 …을】 ㉠_____
【 …에게 …을】 ㉡_____
【 …에게 -기를】 ㉢_____
【 …에게 -도록】 ㉣_____
【 …에게 -고】 ㉤_____

① ㉠: 경찰은 용의자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했다.
②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설득하였다.
③ ㉢: 경찰은 범인에게 투항하기를 설득하였다.
④ ㉣: 나는 동생에게 누나를 설득하도록 했지만 소용없었다.
⑤ ㉤: 나는 두 사람에게 그만 화해하라고 설득하였다.

9.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이미 오래다.(→그만두다)
② 그런 이상한 말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어른이 되다)
③ 내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근근이 살아가다)
④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죽어 땅에 묻히다)
⑤ 선생은 '독립'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잊지 않고 기억하다)

1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에서 청유형 어미가 쓰이면 화자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나 청자 단독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행동 수행 주체 / 청유형 어미	화자, 청자	화자 단독	청자 단독
-자	㉠		㉡
-ㅂ시다		㉢	㉣
-세		㉤	

① ㉠: (회의를 끝내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논의하자.
② ㉡: (아기에게 밥을 먹이며) 아기야, 밥 먹자.
③ ㉢: (도서관에서 떠드는 사람에게) 거, 조용히 좀 합시다.
④ ㉣: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길 좀 비킵시다.
⑤ ㉤: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나, 그 책 좀 보세.

11. <보기>의 대화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須達이* 닐오ᄃᆡ 니ᄅᆞ샨 양ᄋᆞ로 호리이다
㉡ 太子ㅣ 닐오ᄃᆡ 내 룡담ᄒᆞ다라
㉢ 須達이 닐오ᄃᆡ 太子ㅅ 法은 거즛마롤 아니 ᄒᆞ시논 거시니

*須達(수달): 사람 이름

① ㉠: '호리이다'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들어 있겠군.
② ㉡: '내 룡담ᄒᆞ다라'를 보니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로군.
③ ㉡: '太子ㅣ'가 주어인 걸 보니 'ㅣ'는 주격 조사이겠군.
④ ㉢: '太子ㅅ 法'은 '法'이 무정물이므로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군.
⑤ ㉢: '아니'가 부사로 쓰이고 있군.

12. ㉠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국어에서 ㉠동일 모음 탈락은 '가-+-아 → 가', '만나-+-아 → 만나', '건너-+-어 → 건너'와 같이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할 때 나타난다.

① 많이 자도 졸리다.
②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③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한다.
④ 여기 서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⑤ 얘들아, 밤이 너무 늦었으니 어서 자.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종 다른 사람이 웃으면 자신도 따라 웃게 되는 경험을 한다. TV 시트콤에서 재미있을 만한 장면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것도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학자들은 타인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는 것은 우리의 뇌에 웃음소리에만 반응하는 웃음 감지 영역(laughter detector)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청각 신호를 담당하는 뇌 영역 어딘가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덩달아 하품하게 되는 것도 뇌의 시각 영역 어딘가에 하품하는 모습에 반응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웃음 감지 영역이 흥분하게 되고, 이 신호가 웃음 발생 영역(laughter generator)으로 전달돼 결국 따라서 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츠하크 프리드(Itzhak Fried) 박사와 그의 동료 신경외과 의사들은 ⓐ<u>인간의 웃음을 유발하는 뇌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 곳에 자극을 가하면 웃음을 유발한다</u>는 사실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또 로체스터 의대 신경방사선과에 있던 딘 시바타(Dean K. Shibata) 교수 연구팀은 2000년 학회에서 핵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뇌의 어떤 부분이 웃음에 관여하는지 촬영했다. 연구 팀은 13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우스운 만화를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주었을 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촬영했다. 그 결과 웃을 때 오른쪽 이마 뒤쪽에 있는 뇌의 '전두엽 하단'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뇌출혈 등으로 이 영역이 손상된 사람들은 유머를 이해하고 웃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웃음 유발 영역으로 지목된 '전두엽(Frontal lobe)'은 사회적 행동이나 감정적 판단, 의사소통 등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고등동물일수록 이 영역이 발달된다. 시바타 박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은 전두엽 하단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및 신경과학과 로버트 프로빈(Robert R. Provine) 교수는 『웃음, 그에 관한 과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웃음은 그저 유머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사회적 신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광장과 근처의 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1,200명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대화 도중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에 웃는 경우는 10～20퍼센트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그동안 어디 있었니?' 혹은 '만나서 반가워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웃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담을 듣는 사람보다 농담을 하는 사람이 1.5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결국 대화 상대에게 친밀감이나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워 웃는 것이지, 농담을 주고받아야만 웃음이 넘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웃음이 인간관계를 위한 사회적 신호라는 사실은 웃음의 성격이나 빈도가 이성과 함께 있느냐, 혹은 동성 친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현격히 달라진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빈 교수는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나눌 때,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더 많이 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이성과 대화할 때 남성은 여성을 웃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더 많이 웃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A] 웃음이 남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조-앤 바호로프스키(Jo-Anne Bachorowski) 교수는 더 자세한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을 이성이나 동성 친구, 혹은 낯선 사람과 한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로맨틱 코미디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 여자들은 같은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볼 때보다 남자와 함께 볼 때 더 많이 웃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과 함께 영화를 볼 때 더 크게 웃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자가 혼자 영화를 보거나 여자들과 영화를 볼 때는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많이 달랐다. 남자들은 남자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크게 웃었으며, 여성과 함께 있거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웃음소리가 더 작았다.

1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 속 웃음의 증상
② 웃음에 관한 다양한 이해
③ 남녀 간 웃음 반응의 차이
④ 웃음 유발과 웃음 감지의 상관성
⑤ 웃음을 통한 우울증 치료의 현주소

14.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녹음된 웃음소리의 효과를 유형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② 뇌의 웃음 발생 영역을 개념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웃음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④ 웃음이 남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반합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설을 설정하여 대화 상대에 따라 웃는 정도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15. 윗글과 <보기>를 참고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에 있는 폴 에크먼(Paul Ekman) 박사는 입 꼬리를 위로 올리고 억지로라도 웃는 시늉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인위적으로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 내면 몸도 거기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보인다. 일례로, 슬픈 역할을 오랫동안 맡은 배우는 실제로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니체가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고통 받는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① 웃음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② 웃음소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③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옆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는 것이 좋다.
④ 인간은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다.
⑤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웃는 것이 필요하다.

16. [A]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혼자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성은 남성과 함께 볼 때보다 크게 웃겠군.
② 여성이 여성들과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면 남성과 볼 때보다 조용히 시청하겠군.
③ 남성이 낯선 여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남성 동료와 시청할 때보다 조용하겠군.
④ 여성이 낯선 남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아는 남성과 시청할 때보다 크게 웃겠군.
⑤ 남성들은 동료 남성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낯선 남성과 시청할 때보다 더 크게 웃겠군.

17. 윗글을 읽고 ⓐ에 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 감정적 판단과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영역이 발달했다.
② 우울증 환자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웃음소리를 들으면 뇌의 웃음 발생 영역이 자극을 받아 웃음 감지 영역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④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핵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뇌를 촬영하면 뇌의 웃음 유발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
⑤ 대화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보다 뇌의 전두엽 하단이 더 활성화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잭 케루악(Jack Kerouac)은 미국 문학사조 면에서 대체로 '비트 세대(beat generation)' 작가 군으로 분류된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상황에 저항하면서 소위 반문화(counter culture)를 형성한 작가들이다.

얼핏 풍요롭고 평온하게 보이던 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케루악을 비롯한 비트 세대 작가들은 당대의 미국 사회가 순응, 일치, 동질화, 물질주의, 검열, 규범, 획일성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풍요와 평온 밑에 은닉된 이러한 속성들은 정치적, 심리적 억압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미국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은 이 시기의 미국 사회를 '진정제 맞은 1950년대'라고 규정했다. 로웰의 지적처럼 이 당시 미국 사회는 순응과 획일성을 강요받아 마치 진정제를 맞은 환자처럼 그저 평온한 사회였다. 로웰과 비트 세대 작가들은 문학사조 면에서는 공통점이 없지만, 그들이 진단한 미국 사회의 모습은 비슷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사회의 속성들을 미국적 가치로 신봉하던 중산층 계급의 허위 의식을 비판하였다. 즉 청교도라는 전통적 배경과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함께 작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아 검열을 강요하고 개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한 결과, 개인성과 자율성이 억압되었다는 것이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그 당시 미국이 풍요와 평온을 가장한 공포의 사회이고,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단절되고 분열되었으며, 개인은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국가 권력이 조절하는 규범화된 삶을 거부하고 저항적인 반문화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개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소위 '미국주의'의 대두로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적 경제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의 사적인 경험, 자율적인 판단, 자유는 억압되거나 유보되었고 개인은 소비로 불안감을 대신하고 대중문화나 매체에 의하여 쉽게 선동되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소위 [일차원적 인간]이 되어 버렸다. 당시에 미국은 일차원적 인간으로 이루어진 전체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전체 국가와 일차원적 인간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과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이에 정면으로 저항하였다.

비트 세대 작가들의 저항과 대안 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의 대표작 「절규」는 미국의 지배적 주류 문화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이처럼 절망과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것 외에도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가치 체계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생소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았지만 기존의 가치 체계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비트 세대 작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의 모습은

방랑자이다. 보통 여행의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연상되는 덕목은 자유의 추구이다. 이처럼 미국 대륙을 여행하는 방랑자로서 이들 작가들은 그들의 여행을 통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추구하고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기차에 몰래 타거나 지나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마치 불교의 수도승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등 탈규범적인 행위였다. 비트 작가인 윌리엄 버로스(William Burroughs)에 따르면 케루악의 방랑은 '정신적 소외, 불안감,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비트 세대 작가들 중 대표적인 방랑자였던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방랑의 시작이 '1950년대 미국의 정신적, 정치적 외로움'이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비트 세대 작가들은 선불교 사상 수용, 새로운 생태 의식, 비윤리적 행위, 탈규범적 행동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반문화를 형성하여 주류 문화에 저항하였다. 이들이 여기에서 추구한 가치는 비순응성, 자율성, 직접성, 단순성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위에 언급한 주류 사회가 강요한 가치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또한 이러한 비트 세대 작가들의 행위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난 각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억압된 개인성의 회복이며 닫힌 세계가 강요하는 자아 억제에서 벗어나 자아 표현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1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의 개념을 밝혀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적절한 예를 제시하여 중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다양한 가설을 세워 서로 다른 논리들을 비교하고 있다.
④ 여러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원인과 결과를 밝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진정제가 필요한 정신적 질병을 앓는 환자가 많았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반문화주의의 조화를 추구했다.
③ 케루악의 정신적 소외나 스나이더의 외로움은 그들의 방랑의 원천이었다.
④ 비트 세대 작가들은 선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주류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다.
⑤ 비트 세대 작가들은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 대한 긍정을 추구했다.

20. 일차원적 인간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② 공익보다 자신의 자유를 먼저 중시한다.
③ 자신의 존재적 불안을 사회적 기여로 극복하고자 한다.
④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⑤ 타인과 구별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21.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조명이 경기장을 환하게 밝혔다.
②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밝혔다.
③ 옛날에는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다.
④ 인생에서 돈만 밝혀서는 행복하기 어렵다.
⑤ 자식 걱정에 어머니는 뜬눈으로 밤을 밝히셨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통 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의 높이가 같다. 다만 분할된 곳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 버린다. 모든 것은 한 평면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림은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표피적인 열림이다. 한눈에 드러난다는 것, 또는 한눈에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이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당한 형벌이다. 요즈음에 읽은 한 소설가의 소설 속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옥상 위의 물탱크 속에 들어가 숨음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끔찍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탱크는 밖에서는 열 수 있으나 안에서는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평면 위에서 대번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물과 인간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 없다. 두께나 깊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이다.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딴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내가 좋아한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

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 주는 것인지. 그곳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도 굉장한 신비를 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들이어서, 쓰임새 있는 것에만 둘러싸여 살던 우리를 쓰임새의 세계에서 안 쓰임새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화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미워서, 어렸을 때에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매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고!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이윽고 밖으로 나와 때로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은 컴컴하나 안은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세계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 간직해야 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철학자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지하실과 다락방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한식집의 부엌이다. 내가 태어난 시골의 내 외갓집 부엌은, 그 집이 제법 부유했기 때문에 꽤 넓었다. 그 부엌에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부엌을 건너 질러가면, 외할아버지가 친손자들에게만 주려고 외손자들에겐 접근을 막은 단감나무, 대추나무들이 있었다.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부엌 바닥은 한없이 깊고 컴컴했고, 누룽지를 넣어 둔 찬장은 한없이 높고 높았다. 그 부엌을 나는 한 한 달 전에 두 사람의 시인과 함께 놀러 간 어떤 절에서 다시 보았다. 그때의 그 즐거움!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아름다운 산문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렇다.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우물과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그 비밀이 있을 수 없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파트에는 없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 스물두 평 서른두 평의 평면 위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인가.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2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하고 있다.
② 대상을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견해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사물의 속성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서술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23. 윗글에서 [아파트]와 [땅집]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는 아파트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 아파트에서는 삶이 입체적이지 않은 반면, 땅집에서는 삶이 입체적이다.
③ 아파트는 한 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땅집은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는 곳이다.
④ 땅집이 아파트에 비해 아름다운 것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나'는 땅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24. 글쓴이가 느끼는 '땅집의 삶'의 매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② 익숙한 쓰임새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③ 해질 녘에 있음과 없음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④ 하찮은 것들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 준다.
⑤ 컴컴한 바깥의 어둠과 전깃불로 눈처럼 환한 안쪽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25.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땅집]과 <u>다른</u> 것은?

<보 기>

'땅집'은 '장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땅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다.

① 은수저
② 산돼지
③ 가로등
④ 북극곰
⑤ 섬마을

26.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마당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집들 옆에 골목길이 있는 단독주택들을 대신해서 복도와 계단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골목길의 공간적 성격도 달라졌다.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들이 사람들이 느리게 사용하던 골목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골목길은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① 빠른 자동차 세상에도 출구 없는 골목길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야.
② 외국의 큰길들에 비해 한국의 골목길은 너무 좁아. 이제는 우리 길도 더 넓어져야 할 때가 왔어.
③ 골목길도 사라지고 주거 문화도 변하고 있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
④ 비좁은 골목길은 자동차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야. 단독주택들과 골목길은 한시바삐 사라져야 해.
⑤ 동네 주민들이 일하고 이야기 나누던 골목길은 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야.

27. <보기>를 참조할 때 반의어의 유형이 ㉠과 다른 것은?

<보 기>

국어의 등급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넓지도 좁지도 않다.'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상보 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① 살다-죽다
② 춥다-덥다
③ 좋다-싫다
④ 크다-작다
⑤ 빠르다-느리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수성궁 옛터에서 풍류를 즐기려던 유영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우연히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성궁에서 안평 대군과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김 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 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고, 김 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 대군이 진노하여 운영을 죽이려 하지만, 다른 궁녀들이 이를 만류한다.

자란이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차마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항간(巷間)의 천한 여자로 아버지가 순(舜)임금도 아니며 어머니는 아황(娥皇)과 여영(女英)도 아닙니다. 그러니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천자인 목왕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雲雨之情)이 없다 하십니까? 김생은 곧 우리 세대에서 가장 단아한 선비입니다. ⓐ그를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영에게 벼루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히어 가을달과 봄꽃에 매번 성정(性情)을 잃었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는 애가 끊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호남(豪男)을 한 번 보고서 심성(心性)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병이 골수에 사무쳐 비록 불사약이나 월인(越人) 명의(名醫)의 재주라 할지라도 효험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스러진다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두시더라도 돌이켜 보건대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하여 두 사람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積善)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운영이 훼절(毁節)한 것은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 말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오늘의 제 죽음 또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운영의 목숨을 잇게 해 주십시오."

옥녀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서궁(西宮)의 영광을 제가 이미 함께 했는데, 서궁의 재난을 저만 홀로 면하겠습니까? 곤강(崑崗)에 불이 나서 옥석구분(玉石俱焚)**하였으니, 오늘의 죽음은 제가 마땅히 죽을 곳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대군은 우리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란의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怒氣)가 풀리었습니다.

이때 소옥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지난날 중추절에 빨래하기를 성내(城內)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제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의 훼절은 죄가 제 몸에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십시오."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그 나

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습니다.

[A] 진사가 붓을 들고 운영이 옛일을 술회한 대로 기록하니,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면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한참 후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이 이하는 낭군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에 진사가 운영의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운영이 자결한 이후 궁중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궁문 밖까지 들렸으며, 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중략]

ⓑ김 진사는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졌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슬픈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유영이 위로하여 말했다.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고, 원수인 노비 특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입니까?"

김 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여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저승의 관리는 죄 없이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덜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모두 천상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仙人)으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황께서 태청궁(太淸宮)에 납시어 저에게 옥원(玉園)의 과실을 따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반도와 보배를 취해 사사로이 운영에게 주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황께서 속세에 적강시켜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두루 겪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옥황께서 이미 전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삼청궁에 올라 다시 향안전(香案前)을 모시도록 하셨는데, 잠시 틈을 내어 폭풍 수레를 타고 옛날에 노닐던 속세를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중략]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작자 미상, 「운영전」

*초사: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말 또는 글.

**옥석구분: 옥과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선악 구별 없이 함께 화를 당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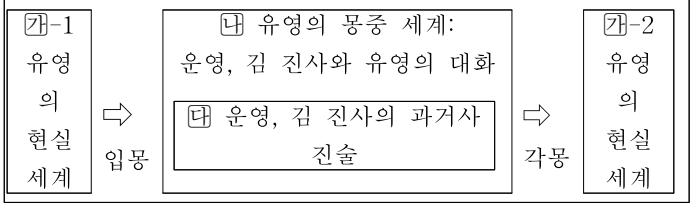
28.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란은 본성을 근거로 운영의 사랑을 옹호하고 있다.
② 운영은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다.
③ 옥녀는 뚜렷한 자기 소신을 갖고 의리를 지키고자 한다.
④ 유영은 세속적 삶의 의욕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
⑤ 대군은 김 진사와의 의리 때문에 궁녀들을 용서하고 있다.

29. [A]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일명 '수성궁몽유록'으로 불린다. 몽유록은 흔히 '입몽-토론-각몽'이라는 정형화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이 우연히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후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 운영과 김 진사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몽유록 서술 구조에서 '토론'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바, 여러 이야기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① ㉮-2로 돌아온 유영은 꿈꾸기 전과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② ㉯에서 언급된 안평 대군은 ㉰의 운영, 김 진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좌절한 인물이다.
③ ㉰의 과거사에서 김 진사와 노비 특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④ ㉰의 이야기는 운영과 김 진사라는 일인칭 서술자의 입을 통해 진술된 것이다.
⑤ ㉰에 운영과 김 진사가 안평 대군이 몰락한 일로 비통해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30.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영은 고민과 갈등 끝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성이군.

② 궁녀들은 대군에게 자신들의 죽음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일깨워 주고 있군.

③ 자란은 역사적 인물들의 고사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군.

④ 평생을 궁에 갇혀 지내는 궁녀라는 설정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에 비극성을 부여하고 있군.

⑤ 죽은 뒤 천상에서 복을 누리게 된 운영과 김 진사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군.

31. ⓐ~ⓔ 중 사건 전개상 가장 앞서 일어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2. 윗글에 나타난 유영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① 얼굴 씻으매 눈물이 물을 이루고 / 거문고 타매 한스러움 현(絃)을 울리네 /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② 가느다란 푸른 연기 멀리 바라보다 / 미인은 깁 짜는 걸 그만 두누나 / 바람 맞으며 홀로 설워하나니 /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누나

③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④ 서리 가득한 외로운 성에 군대 머무니 / 지는 달빛 아래 뿔피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 / 등불 앞에서 괴로이 강남의 밤 생각하노라니 /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누나

⑤ 베개 베도 호접몽(胡蝶夢) 이루지 못하고 / 눈 빠지게 기다리나 소식이 없네 / 그대 얼굴 눈앞에 어른거리건만 왜 말이 없는지? / 수풀에 꾀꼬리 우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을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ᆞᆯ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ᄆᆞᆯ힛 마리신뎌*
ᄉᆞᆯ읏븐뎌** 아으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 「정과정」

*ᄆᆞᆯ힛 마리신뎌: 뭇 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ᄉᆞᆯ읏븐뎌: 슬프구나

(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듸매오/ 오색운 깁픈 곳의 자청전(紫淸殿)이 ᄀᆞ려시니/ 천문(天門) 구만(九萬) 리(里)를 ᄭᅮᆷ이라도 갈동말동/ ᄎᆞ라리 ᄉᆡ여지여 억만 번 변화ᄒᆞ여/ 남산 늦즌 봄의 두견(杜鵑)의 넉시 되어/ 이화(梨花) 가디 우희 밤낫즐 못 울거든/ 삼청 동리(三淸洞裏)의 졈은 한널 구름 되어/ ᄇᆞ람의 흘리 ᄂᆞ라 자미궁(紫微宮)의 ᄂᆞ라 올라/ 옥황 향안전(香案前)의 지척의 나아 안자/ 흉중의 싸힌 말ᄉᆞᆷ ᄉᆞᆯ커시 ᄉᆞ로리라/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의 느저 나니/ ⓑ황하수(黃河水) ᄆᆞᆯ다만ᄂᆞᆫ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ᄀᆞ이 업고/ 가태부(賈太傅)**의 넉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조위, 「만분가」

*초객: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 간신들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 멱라수에 몸을 던졌다.
**가태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문인 가의(賈誼). 모함을 받아 좌천되자 자신을 굴원(초객)에 비유한 시를 써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픈 뫼히 올라가니/ 구롬은카니와 안개ᄂᆞᆫ ᄆᆞ사 일고/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쳑(咫尺)을 모ᄅᆞ거든 쳔리(千里)랄 ᄇᆞ라보랴/ 출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 길히나 보랴 하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 가고 ⓒ뷘 ᄇᆡ만 걸렷ᄂᆞᆫ고/ 강텬(江川)의 혼쟈 셔셔 디ᄂᆞᆫ ᄒᆡ롤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모쳠(茅簷) 춘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눌 위ᄒᆞ야 불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쓰며 바니니/ 져근덧 녁진(力盡)ᄒᆞ야 픗ᄌᆞᆷ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ᄒᆞ야 ᄭᅮᆷ의 님을 보니/ 옥 ᄀᆞ튼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ᄒᆞ며/ 졍(情)을 못다 ᄒᆞ야 목이조차 메여ᄒᆞ니/ 오뎐된 계셩(鷄聲)의 ᄌᆞᆷ은 엇디 ᄭᅵ돗던고/ 어와 허ᄉᆞ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ᄲᅮᆫ이로다/ ㉠출ᄒᆞ리 ᄉᆡ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33. (가)~(다)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4음보의 율격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③ 결핍 상태의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화자의 욕망을 노래하고 있다.

④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화자는 대상(임)과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만, 가까이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34. (가)~(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의 '산(山) 접동새'와 (나)의 '가태부(賈太傅)의 넋'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② (가)의 '괴오쇼셔'와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③ (나)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과 (다)의 '높픈 뫼'는 탈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④ (나)의 '구름'과 (다)의 'ᄇᆡ 길'은 화자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이다.
⑤ (다)의 '구롬'과 'ᄇᆞ람'과 '믈결'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35. <보기>를 참고해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작자인 정서(鄭敍)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종(毅宗)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의 소식이 없자, 정서는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은 왕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여성 화자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시초다.

① 1, 2행에서 접동새의 울음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을 표상한다.
② 4행에서 잔월효성(殘月曉星)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에 해당한다.
③ 5행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
④ 7행은 왕을 모시고 싶다는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10, 11행에는 원망과 그리움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교차되어 있다.

36. <보기>를 참고해 (다)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정철의 「속미인곡」은 전체적으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주로 주 화자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 등장했던 보조 화자는 결사 부분에서 다시 나온다. 「속미인곡」에서 보조 화자가 말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역할이 적지 않다.

① 보조 화자의 발화는 작품을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
② 주 화자는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절박한 심경에 놓여 있다.
③ 주 화자와 보조 화자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④ 보조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주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⑤ 보조 화자는 주 화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더 완곡하게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37. ⓐ~ⓔ 중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훤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봉건, 「사랑」

(나)
㉠<u>푸른 하늘</u>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u>낡은 거미집</u> 휘두르고
㉢<u>끝없는 꿈길</u>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u>검은 그림자</u>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u>바람</u>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 「교목」

(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저 가 버리면
억만(億萬)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듸!"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듸!"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 「독을 차고」

38. (가)~(다)의 화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②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
③ 윤리적 고민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자 한다.
④ 개인적 차원의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⑤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39.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정서를 애상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② 상반된 함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생생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④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시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⑤ 점층적 표현을 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0. (나)의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은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다.
② ㉡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가리킨다.
③ ㉢은 '마음속의 이상'을 가리킨다.
④ ㉣은 '부정적인 자아'를 가리킨다.
⑤ ㉤은 '시련'의 의미를 갖는다.

41. (다)에서 [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내' 안의 부정적 성향을 가리킨다.
②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③ 부정적 현실로 인해 '내'가 간직해야 했던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④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
⑤ '나'로 하여금 허무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아홉 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 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 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거로.'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도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u>㉠마취도 안한 아이는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u>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 버린 진영이었다.

바깥 거리 위에는 쏴아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득인다. 창백한 볼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나날들이었다. <u>㉡눈을 감은 진영의 귀에 조수(潮水)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u>

[중략]

아주머니가 가버린 뒤 진영은 자리에 쓰러졌다. 솜처럼 몸이 풀어진다.

진영은 방속에 피운 구멍탄 스토브에서 가스가 분명히 지금 방에 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 안에 가득히 가스가 차면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진영은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었다.

<u>㉢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다.</u> 진영은 꿈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모레가 명절인데 절에도 돈 천 환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진데…… 남들은 다 제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에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영은 외투와 목도리를 안고 마루에 나와 그것을 몸에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벼르던 일을 오늘이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박사박 밟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u>㉣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싹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u>

목도리와 외투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잡나무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 깃에 날아 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 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하던 늙은 중이 막 승방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괴괴하니 다른 인기척은 없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중 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옇게 풀어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던 중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떠우.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홱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쏘아붙인다. 중은 좀 어리둥절해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중얼중얼 씨부렁거리며 법당으로 간다.

이윽고 중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 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 문 밖으로 걸어 나간다.

화가 난 중은 진영의 뒷모습을 겨누어보다가 중얼중얼 씨부렁거리며 뒷간으로 간다.

진영은 중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는 빨리 사진을 받아 가지고 절 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A]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도수장: 도살장

-박경리, 「불신시대」

4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사건의 전개 과정이 우화적인 의미를 갖도록 서술하고 있다.
② 사건의 인과 관계가 느슨한 여러 개의 삽화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사건의 실제적 전개보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여러 인물들의 회상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43. 진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전쟁 중에 의사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만다.
②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
③ 건강을 위협하는 병에 걸려 있다.
④ 연탄가스가 새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
⑤ 절의 늙은 중을 정성껏 응대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는 죽어간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 '밀려오는' '조수'는 인물이 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③ ㉢: 꿈에 나타난 '내장이 터진 소년병'은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④ ㉣: '고슴도치처럼 바싹' '솟은' '털'은 인물이 앞으로 있을 싸움을 앞두고 몹시 화가 나 있음을 의미한다.
⑤ ㉤: '사진'을 태우는 행위에는 아들의 죽음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가 담겨 있다.

45. [A]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인공은 자신에게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②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③ 주인공의 경우처럼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아.
④ 주인공처럼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면 안 되겠어.
⑤ 주인공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데에는 종교적 믿음이 부족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어.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